

현대차 ‘중고차 사업’ 초읽기… 중고차업계 “생존권 위협”

현대차 주총서 사업목적 추가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 추진
기아, 중고차 상담직원 채용

중고차업계 “골목상권 침해
모든수단 동원 강력 대응할 것”



서울의 한 중고차 시장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 하반기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고차업계가 또다시 반발에 나섰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중고차 사업 진출을 진행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장벽에 막혀 1년 미루게 됐다. 당시 중기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를 열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1년 유예해 2023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는 또다시 시장 진출 자체는 감수하지만 ‘골목상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매매업 골목상권 진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경기 용인의 오토허브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주 계약을 맺었다.

현대차가 단독매장이 아닌 중고차업

계가 형성해놓은 상권인 매매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중소매매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연합회는 “기존 매매단지에 입주하려는 현대차의 행위, 이른바 ‘골목상권’에 진입해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30만 영세 소상공인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가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현대차의 불공정 영업행태’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매단지 입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차 시장의 침체 상황도 중고차업계가 반발하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경기 침체 여파로 중고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고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당 매매단지에 입주하는 시설은 중고차 매장이 아닌 진단, 정비, 물류 등 상품화를 위한 시설인 만큼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오는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체 중고차 판매량 중 최대 2.9%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고차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경남 양산에 인증 중고차 전용 매매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차 매매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업계 최고 수준의 중고차 품질 검사·인증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아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인증 중고차 고객센터 상담직원을 채용했다. 근무지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부근이며, 연봉은 3900만원에 성과급은 별도로 지급되는 조건이 제시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항공기 10대로 확대… 매출 1460억 목표”

이스타항공 재운항 기념 간담회
조중석 대표 “실패를 열정으로 승화”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가 14일 열린 기자회견담회에서 이스타항공 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3년여 만에 운항을 재개한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안으로 항공기를 10대로 늘리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국제선 취항에 나설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14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재운항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실패의 경험을 경쟁력으로 삼아 실패를 열정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올 1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인수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VIG파트너스의 1100억원 운영자금 투자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고 추정 부채비율은 150% 수준으로 낮아지며 ‘비상(飛上)’을 준비하고 있다.

조 대표는 “올해는 200여 명의 추가 채용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거 이스타항공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 전 임원들이 주도했던 일”이라고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보유 항공기를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7호기부터는 차세대 항공기 737-8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1460억원 매출을 목표로 삼았다. 내년에는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노린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추가 도입되는 항공기를 지방 공항발 제주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매출 목표 산출 근거는 국제선 운항 노선의 과거 탑승률을 기준으로 운항편수를 계산해서 산출한 것”이라며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확정적으로 언제 정확히 국제선 취항을 시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올해 하반기 7월~9월 중으로 국제선을 띄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기체 도입 상황과 시장 추이를 살핀 뒤 인천~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노선과 베트남, 동남아 등의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라는 기존 사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허정운 기자 zelkova@

LG전자, 협력사 상생협력펀드 확대 지원

작년보다 금리 감면폭 2배이상 확대
무이자 직접자금 지원도 지속 운영

LG전자가 협력사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상생을 더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에도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펀드는 협력사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정책이다. 2010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작년부터는 3차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 LG전자는 시중 4대 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지난해보다 금리 감면폭을 2배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

LG전자 협력사(주)성진일렉트론은 상생협력펀드 특별 감면금리를 적용받아 일반 금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출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동준 대표는 “특별 감면금리로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 낮아져 경영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직접 자금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신규 및 자동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협력사에 매년 400억 원 규모 자금을 제공해왔다. 또 수출입은행과 함께 ‘해외동반 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의 경우 16개 협력사에 해외 동반 진출 자금 약 1100억 원을 무대금리로 지원했다.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대금 결제일에 조기 현금화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차 협력사 150여 곳이 상생결제를 이용했다. LG전자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전달되는 비율인 상생결제 낙수율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12.7%다. 지난해 LG전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결제를 지원받은 2·3차 협력사는 1100여 곳에 이른다.

한화솔루션,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CTO로 영입

차세대 모듈 개발·연구 속도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GE리뉴어블에너지는 미국 GE의 에너지사업 자회사로 풍력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를 글로벌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듈 제품 개발과 재생에너지 연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한화솔루션은 다니엘 머펠드 GE리뉴어블에너지 최고기술책임자 겸 부사장(사진)을 큐셀 부문 글로벌 최고기술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GE리뉴어블에너지는 미국 GE의 에너지사업 자회사로 풍력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는 1999년 GE 글로벌리서치에 입사한 뒤 GE파워, GE리뉴어블에너지 등에서 근무하며 23년간 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했다. 머펠드 CTO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한화솔루션의 3개국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개발(R&D) 시너지를 창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판교와 독일 탈하임 R&D 센터를 연결해 전사 차원에서 기술 로드맵을 강화하는 한편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인 ‘솔라허브’ 가동에 맞춰 기술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양성운 기자

일진머티리얼즈 사명 변경 완료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일진머티리얼즈가 사명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 변경하고 김연섭 롯데케미칼 전략기획본부장(CSO·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14일 전북 익산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및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김연섭 롯데케미칼 CSO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대표이사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범용 동박 제품부터 고강도, 고연신의 고부가제품군까지 다양한 제품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



한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라며, “롯데그룹화학군의 핵심 자회사로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소재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국내 메이저 동박 생산 기업으로서 지난 2022년 3분기까지 5582억원 매출과 6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국내외 글로벌 배터리 회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 등을 맺고 있어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허정운 기자